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鏞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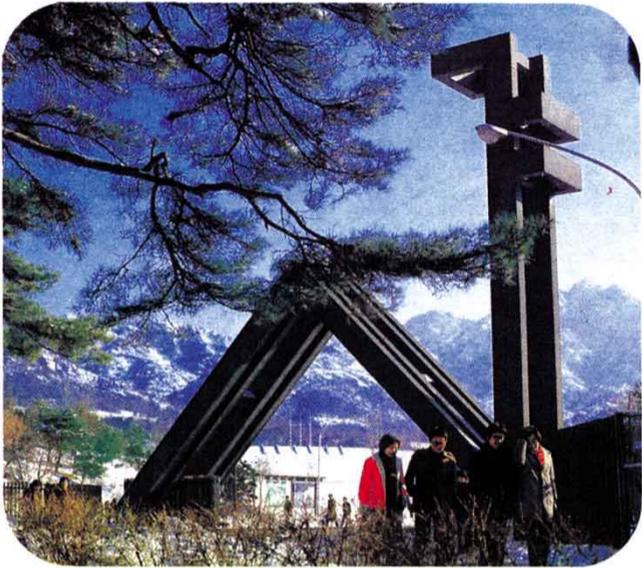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歲暮에 되새겨지는 眞理의 3寶

圖書館 · 奎章閣 · 博物館



〈사진〉 ① 母校 중앙도서관. 올 한해동안(11月末 현재) 延6백만명이 利用. ② 民族文化의 寶庫 奎章閣. ③ 明年 완공예정인 博物館.

冠岳春秋

올해도 이제 歲暮의 절어들었다. 돌이켜 볼때, 올해와 같이 國內外的으로 그야말로 多事多難했던 해도 없었던 것 같다. 요즘은 韓半島의 危機가 하도 심각하고 절박해서, 東西獨의 統一, 소련·中國 그리고 東歐圈의 변동등, 그전 같으면 驚天動地의 變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 많은 사건도 우리의 視野를 벗어난 感覺을 주고 있다. 이런 큰 변동은 國際社會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금년들어 與小野大의 政治氣流가 잠시 3黨統合으로 巨現現象을 빚어냈고, 거센 野黨의 저항으로 4개월간의 政治的空白期를 초래했다. UR의 진동, 美國과의 貿易摩擦, 輸出萎縮 그리고 무엇보다도 「犯罪와의 戰爭」등은 지난 해 우리社會의 經濟, 社會의 암울한 측면을 상징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總理事會談, 韓蘇관계개선, 中國과의 새로운 接近, 그리고 東歐圈 여러 나라의 國家元首 來韓 등등은 우리의 北方外交의 밝은 앞길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밝은 면은 어두운 면을 모두 삼켜버리면서 1990년의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다.

1990년을 보내며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때, 우리 同窓會는 어떠한 世態속에서 도 꾸준한 成長을 보아왔다고 할 수 있다. 宿願事業의 하나였던 名簿發刊을 마치고 애당초 計劃했던 10억 韓鎊基金 積立事業도 벌써 3억이 넘어 進行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特別한 일은 우리 동창회會長團이 美國을 방문해서 海外同門結束의 陣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母校에서는 금년의 開校記念日에 美國의 거주하는 몇 同門을 초청해서 기념행사의 참가시켰다. 그들의 感懷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의 呼應의 힘은 우리의 동창회에서 海外支部 結成을 다짐하게 되었고 금년도의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런 大學과 同窓會 불 때 이런 사연은 晩時之歎이 있느냐 우리 同門들의 底力을 생각해 볼 때, 靑島의 成果가 있으리라 고 믿는다. 이제 海外同門과의 交流 및 海外同窓會의 活性化를 통해서 우리의 동창회는 國際的規模를 갖게 된 셈이다. 母校의 발전에 1990년은 더욱 發展을 다짐하는 한해였다. 그토록 여겨왔던 學院소유도 을 해에 들어서면서 거의 가시고 社會로 부터도 높은 評價를 받기 시작했다. 韓國소유震源地로서의 母校는 이제 學園安定的의 면에서 다른 大學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 冠岳캠퍼스에는 過去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教育 및 研究의 시설이 擴充되었다. 그리고 그 많은 施設物이 社會의 篤志家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새로운 일일 것이다. 今年에 竣工을 본 湖巖生活館, 新素材研究所, 鮮京 經營館 基礎電力研究所 등은 모두가 그러한 것들이다. 이런 시설 이외에도 大學發展을 위한 많은 基金이 들어왔다. 韓國火藥의 圖書擴充基金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社會의 大學에 대한 관심과 協力が 加增됨에 따라 母校側에서도 能動的으로 產學協同의 기틀을 다져나간게 되었다. 모교의 趙完圭總長은 그 목적으로 每週 한번 地方巡訪을 하고 있다. 이러한 地方巡訪은 地方 동문들의 母校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관심이 集約되고 다져지면 母校와의 有機的 關係도 자연히 固執될 것이다. 地方巡訪에서 指摘받은 것의 하나인 母校가 知識教育만이 아니라 德性教育에도 力點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同門들의 조출한도 인에서 특히 母校卒業生 사이에 德性이론 의 되었다는 것은 매우 衝擊的인 일이다. 알 수 없다. 母校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知性的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疑心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德性涵養의 측면에서는 어떤가. 이에 대해서 肯定的 自信을 갖는 동문들의 靑島나 될 것인가. 아날은 이런 사실도 이번 趙完圭의 地方巡訪에서 인연 貴重한 敎訓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同門들의 母校에 대한 靑島에 關心과 協力を 매우 祈望하는 것이다. 끝으로 모든 同門들의 善哉의 萬福을 빈다.

母校가 雄飛할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發展基金」 조성에 同門들의 관심을

서울대학교 總長 趙完圭
發展基金 理事長 趙完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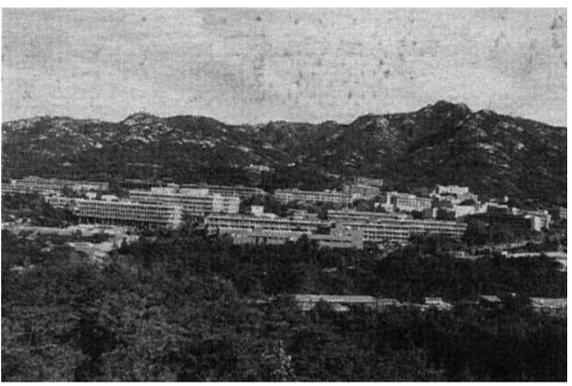
동문 여러분!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21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대학의 연구, 교육, 장학, 그리고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설과 인재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6년 開校 이래 國家 民族을 이끌 어갈 人材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6년 開校 이래 國家 民族을 이끌 어갈 人材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趙完圭



◇ 모교가 세계적인 名門大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同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法人設立의
내 대학이 8월 1일 「發展基金」을 설립하고, 「發展基金」을 통해 대학의 연구, 교육, 장학, 그리고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설과 인재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國際수준의 大學院 중심 大學 목표
出捐 형태 가리지 않고 分割 납부도 가능

「發展基金」은 「發展基金」과 「學術研究財團」을 통해 조성됩니다. 「發展基金」은 대학의 연구, 교육, 장학, 그리고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설과 인재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參與方法
1. 「發展基金」 조성금
2. 「發展基金」 조성금
3. 「發展基金」 조성금
4. 「發展基金」 조성금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先進國의 經濟 發展
대학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대학의 연구, 교육, 장학, 그리고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설과 인재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先進國의 經濟 發展
대학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대학의 연구, 교육, 장학, 그리고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설과 인재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發展基金」 조성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서울대학교 發展基金 事務局 (82-1-81-4000) | 서울대학교 總長 趙完圭 (82-1-81-4000) | 서울대학교 發展基金 理事長 趙完圭 (82-1-81-4000)

올해 얼마나 발전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同窓會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親睦의무의 행사에서 벗어나 母校의 發展을 위한 各種의 活動을 積極하게 展開하고 있다. 本報에서 31年 末에 截止하고 새해의 目標을 擘화한 同窓會의 發展을 展望하는 記事를 刊載한다. <편집자 주>

單大동창회 90년決算

工科大學
 工大同窓會(회장 崔鍾基)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崔 회장은 "90년 1년간 同窓會의 發展을 擘화하고 親睦의무의 行사를 積極하게 展開했다"고 強調했다.

母校지원·獎學사업 크게늘어

單大同窓會(회장 權相澈)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崔 회장은 "90년 1년간 同窓會의 發展을 擘화하고 親睦의무의 行사를 積極하게 展開했다"고 強調했다.

會誌발행등 親睦·組織강화 힘써

單大藥大회장 신임 轉換期 맞아 會誌발행등 親睦·組織강화 힘써



◊ 單大동창회는 1990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지 올해가 70주년 이 되는 해로 古稀잔치를 성대히 가졌다.

의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崔 회장은 "90년 1년간 同窓會의 發展을 擘화하고 親睦의무의 行사를 積極하게 展開했다"고 強調했다.

醫科大學

醫科大學 同窓會(회장 李春植)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大學院

大學院 同窓會(회장 金道植)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環境大學院

環境大學院 同窓會(회장 金秉植)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醫科大學

醫科大學 同窓會(회장 權相澈)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藥學大學

藥學大學 同窓會(회장 權相澈)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商科大學

商科大學 同窓會(회장 張禮植)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師範大學

師範大學 同窓會(회장 權相澈)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法科大學

法科大學 同窓會(회장 權相澈)가 1990년 12월 31일 截止된 90년 決算을 發表했다. 90년 決算은 總收入 1,200만 원, 總支出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盈餘를 實現했다.



▲李秉洵 (35년) 商
大卒·국제
화학회사
협회장·冠
岳會理事
11월2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允榮 (49년) 法
大卒·한국
가정법률상
단장·본
會理事
10월30일 오후
10시30분
관악서삼일스
기념식을 개최.



▲李應百 (49년) 師
大卒·母校
名譽教授·
本報編輯委
員
수원문화진흥회
문예위원회
문예위원(회장
金泰吉)과 공
동주최로 11월3·4일
양에서 제7회 수원문화
미니콘 개최.



▲洪承稷 (49년) 師
大·고려대
교수·本會
理事
아문재연구소장으로서 11월16
일에서 18일까지 서울파크호
텔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교육·문화·제4차 사회
개발 워크숍을 개최.



▲李正國 (49년) 獸
醫大卒·母
校獸醫大教
授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禮植 (49년) 藥
大卒·前藥
大同會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閔東根 (52년) 文
理大卒·忠
南大教授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趙秉洵 (52년) 文
理大卒·母
校總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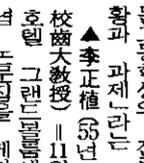
▲李漢彬 (54년) 文
理大卒·前
부총장·本
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漢彬 (54년) 文
理大卒·前
부총장·本
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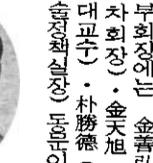
▲李漢彬 (54년) 文
理大卒·前
부총장·本
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漢彬 (54년) 文
理大卒·前
부총장·本
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漢彬 (54년) 文
理大卒·前
부총장·本
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漢彬 (54년) 文
理大卒·前
부총장·本
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姜晉求 (57년) 工
大卒·삼성
전자회
本會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鄭南燮 (57년) 法
大卒·삼부
토건사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鄭南燮 (57년) 法
大卒·삼부
토건사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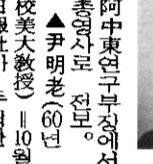
▲鄭南燮 (57년) 法
大卒·삼부
토건사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鄭南燮 (57년) 法
大卒·삼부
토건사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鄭南燮 (57년) 法
大卒·삼부
토건사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鄭南燮 (57년) 法
大卒·삼부
토건사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鍾日 (61년) 法
大卒·前대
검찰청
사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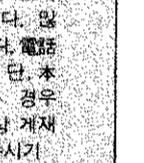
▲金夏鎭 (62년) 文
理大卒·아
주대학교수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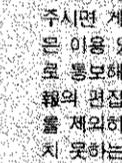
▲宋相勳 (62년) 文
理大卒·한
림대학교수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忠熙 (58년) 文
理大卒·한
국표준연구
소장·本會
理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權潤芳 (63년) 師
大卒·母校
체육학회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壽仁 (63년) 商
大卒·삼남
대학교수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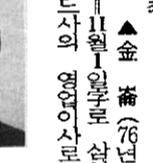
▲李壽仁 (63년) 商
大卒·삼남
대학교수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金東璠 (70년) 文
理大卒
11월5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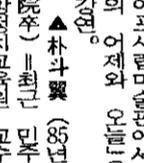
▲鄭夢準 (75년) 商
大卒·현대
중공업사장
本會副會長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黃賢秀 (78년) 美
大卒·조가
가·本會理
事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金炳宗 (81년) 美
大卒·母校
美大教授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朴斗翼 (85년) 環境大學
院卒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安致淳 (62년) 法
大卒·국무
총리실행정
조정실장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李朝淵 (70년) 文
理大卒·경
정서
11월10일
출판부에서
12월10일 남
경에서
11월20일 단국대 개교43주
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제학박
사학위를 받음.

動靜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소개
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
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
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
話로 홍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
欄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年3회 이상 게재
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702) 2233~5
FAX: (703) 0755

揭示板

謹 弔

- ▲ 양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 ▲ 노기범 (86년) 工大卒
- ▲ 서은주 양 12월 2일 오후 3시
- ▲ 정민호 (85년) 農大卒
- ▲ 박미숙 양 12월 2일 오후 4시 30분
- ▲ 권오형 (84년) 社會大卒
- ▲ 김경임 양 12월 7일 오후 1시
- ▲ 정지원 양 12월 8일 오후 11시 30분
- ▲ 김원호 (87년) 工大卒
- ▲ 박은주 양 12월 8일 오후 1시
- ▲ 김홍석 (89년) 師大卒
- ▲ 김신희 양 12월 8일 오후 2시 30분
- ▲ 김완섭 (自然大 재학중)
- ▲ 김동현 양 12월 8일 오후 4시
- ▲ 김택중 (85년) 師大卒
- ▲ 김정혜 (88년) 師大卒
- ▲ 김진배 (89년) 師大卒
- ▲ 윤현주 (89년) 師大卒
- ▲ 김중운 (85년) 社會大卒
- ▲ 강희경 양 12월 9일 오후 3시
- ▲ 이상훈 (87년) 社會大卒
- ▲ 이길우 양 12월 9일 오후 4시 30분
- ▲ 이원주 (90년) 工大卒
- ▲ 전옥경 (88년) 家政大卒
- ▲ 이영하 (89년) 經濟大卒
- ▲ 김미숙 양 12월 13일 오후 12시
- ▲ 박제홍 (76년) 師大卒
- ▲ 이영림 양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 ▲ 김형석 (86년) 經營大卒
- ▲ 이복희 양 12월 14일 오후 1시
- ▲ 김동규 (82년) 師大卒
- ▲ 김미숙 양 12월 15일 오후 11시
- ▲ 이정훈 (89년) 工大卒
- ▲ 이정내 양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
- ▲ 김세일 (85년) 美大卒
- ▲ 지명순 양 12월 15일 오후 2시
- ▲ 김동명 (87년) 社會大卒
- ▲ 김현주 양 12월 15일 오후 3시 30분
- ▲ 김명호 (89년) 工大卒
- ▲ 민희순 양 12월 16일 오후 12시
- ▲ 박동하 (86년) 師大卒
- ▲ 김동미 양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 ▲ 배민 (86년) 藥大卒

年會費 내지신분

일반: 9월17일 ~ 11월16일까지
이사: 10월21일 ~ 11월16일까지

會長團

▲李聖秀 常任副會長
50만원

理事

◇工科大學

▲金辨殊 ① 삼양사부사
▲崔永祥 ② 한국전력기
▲權聖路 ③ 대우인지
▲李聖秀 ④ 어원정보이사

◇文理科大學

▲盧健一 ① 내부차관
▲張世壽 ② 서울대학교
▲田炳斗 ③ 신세계백화
▲宋興泰 ④ 삼신물산사
▲金錫鐵 ⑤ 한국전산원

◇農科大學

▲李興求 ① 한국사료협
▲趙在明 ② 임업시험장
▲吳在鼎 ③ 농정사료공
▲李項柱 ④ 농림수산부
▲李聖秀 ⑤ 농림수산부

◇美術大學

▲朴世元 ① 모성연대미
▲李聖秀 ② 서울대학교
▲金鍾泰 ③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金基洙 ① 한일대법대
▲梁在善 ② 국회의원
▲梁在善 ③ 국회의원
▲梁在善 ④ 국회의원

◇音樂大學

▲李誠載 ① 서울대음대
▲李聖秀 ② 서울대음대
▲李聖秀 ③ 서울대음대

人名 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韓相源 ① 한국수출회
▲崔相浩 ② 농협전부대
▲吳鳳國 ③ 서울대농대
▲宋敏鎬 ④ 대전대학교
▲廉宰世 ⑤ 대구그림기
▲李廷武 ⑥ 국회의원
▲韓鳳珠 ⑦ 대한상시중
▲李元昇 ⑧ 국회의원
▲李興鎔 ⑨ 한국회원의원
▲梁昌德 ⑩ 무림기안회
▲洪起鎬 ⑪ 제일화학재
▲鄭周錫 ⑫ 미동상사부

▲宋敏鎬 ① 대전대학교
▲廉宰世 ② 대구그림기
▲李廷武 ③ 국회의원
▲韓鳳珠 ④ 대한상시중
▲李元昇 ⑤ 국회의원
▲李興鎔 ⑥ 한국회원의원
▲梁昌德 ⑦ 무림기안회
▲洪起鎬 ⑧ 제일화학재
▲鄭周錫 ⑨ 미동상사부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許妍旭 ① 김성치과의
▲金贊淑 ② 김진숙치과
▲李俊鶴 ③ 태산산업회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歲暮가 가까와 옵니다. 동창회의 모든 사업도 이달이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직 年會費를 납부하지 않은 同門 들께서는 이달 안으로 내주셔서 同窓會 활성화에 寄與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會費 내역 —

- 一般會員 1만원
- 理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趙太濤 ① 수성농산사
▲金永燦 ② 중앙간호학
▲洪基鎬 ③ 남양양막사
▲李一薰 ④ 돌돌부자골
▲林炳燾 ⑤ 미주산호신
▲錢章源 ⑥ 대구기조실
▲錢章源 ⑦ 대구기조실
▲朴容熙 ⑧ 부근초등학교
▲崔廷完 ⑨ 한울신문사
▲宋明鎬 ⑩ 제일은행인
▲趙容燾 ⑪ 한국산업회
▲宋三錫 ⑫ 모나미디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聖秀 ④ 어원정보이사
▲權聖路 ③ 대우인지
▲李聖秀 ④ 어원정보이사
▲盧健一 ① 내부차관
▲張世壽 ② 서울대학교
▲田炳斗 ③ 신세계백화
▲宋興泰 ④ 삼신물산사
▲金錫鐵 ⑤ 한국전산원
▲李興求 ① 한국사료협
▲趙在明 ② 임업시험장
▲吳在鼎 ③ 농정사료공
▲李項柱 ④ 농림수산부
▲李聖秀 ⑤ 농림수산부

▲朴世元 ① 모성연대미
▲李聖秀 ② 서울대학교
▲金鍾泰 ③ 서울대학교
▲金基洙 ① 한일대법대
▲梁在善 ② 국회의원
▲梁在善 ③ 국회의원
▲梁在善 ④ 국회의원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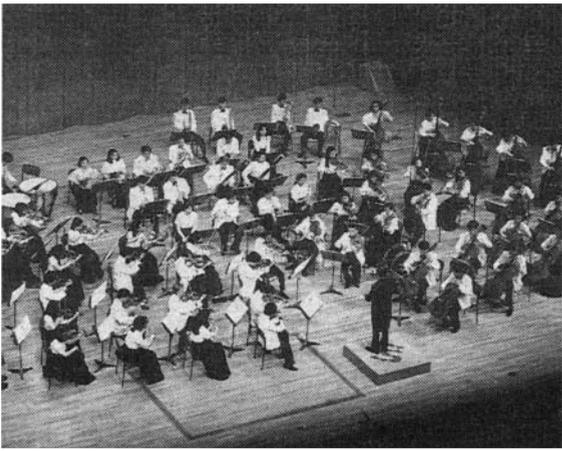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金元鎬 ① 대한여행사
▲李鍾憲 ② 덕인양대
▲蔡賢錫 ③ 대발물차사
▲崔周完 ④ 대우자동차
▲許秉燮 ⑤ 대하전기사
▲崔錫杰 ⑥ 대구제철연
▲崔昌杰 ⑦ 고려아연부
▲金榮洙 ⑧ 강원도교원
▲金仁濟 ⑨ 울산발전원
▲崔泳一 ⑩ 기독교방송
▲李鍾厚 ⑪ 농도원인
▲李道弼 ⑫ 원익크리크

불우靑少年 위한 자선音樂會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음악계에도 갖가지 행사가 무르익는 가운데 민간오케스트라 서울심포니가 한국보훈청소년선교원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박인수(모교 音大교수·테너)·김현곤(78년 音大卒·KBS클라리넷수석)·김봉(79년 音大卒·경원대교수)·이규도(소프라노)·김남윤(모교 音大부교수·바이올린) 등 국내 굴지의 연주자들이 참가하는데, 장소는 특별히 국립극장대극장으로 정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 프로그램 : J. 스트라우스(박쥐서곡), 베토벤(삼중협주곡 C장조), 베르디(일트르보타레中 저무서운 불꽃을 보라)외 현제명, 김동진, 최영섭의 가곡.

◎ 일시 : 12월 30일 오후 7시.

서울심포니주최로 국내굴지의 音樂人 모여

公演

▲柳奉佑바이올린독주회

- 12월 19일 예술의 전당 민간실내악단으로 고유의 영역을 개척해온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있는 유봉우(78년 音大卒) 동문의 독주 무대. 유동문은 애플로리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곳서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다. 귀국후 국립교향악단, 목원대학교교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간 서울심포니의 악장으로서, 또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나름대로 구축해온 음악세계를 선보인다. 피아노엔카혜영이 협연한다.

▲金泳律호른독주회

- 12월 14일 예술의 전당 김영률은 모교 音大(80년卒)를 거쳐 세계 管樂의 명문 Eastma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관악계에서는 나름대로 학구적인 음악자세를 평가받고 있는데, 귀국전에는 로체스터 김

스캄버의 수석주자로 활동했다. 현재 KBS의 부수석으로 있으며, Aulos 북관 5중주단의 멤버로도 활발한 실내악활동을 펴고 있는 김동문의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의 「혼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Op. 17」과 스트라우스·브람스의 곡들이 선보인다.

▲皮虎英바이올린독주회

- 12월 7일 예술의 전당 현재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皮虎英의 귀국 무대. 모교 音大(83년卒)를 거쳐 파리 에콜 노르말고등음악원 졸업공람에서 심사위원 단장일치로 1등상을 수상했고, 지난 71년 이래 각종 콩쿨 우승경력과 유럽 각지의 페스티벌 초청연주를 통해 주목받는 연주자로 알려져 이번 무대는 눈길을 끈다. J.M. Leclair, O. Messiaen 등 신선한 레퍼터리로 꾸며진다.

▲아르스 챔버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 12월 30일 호암아트홀 Ars는 라틴어로 「예술」이란 뜻인데, 이를 그대로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젊은 음악인들의 실내악 무대. 이 팀은 84년도에 서울에고 졸업생들로 구성돼 지금까지 10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바 있다. 모차르트의 마적·바그너의 지그프리드 목가·하이든의 심포니 45번 고별외에도 국내 초연의 Wie-

niawski 바이올린 협주곡1번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의 지휘는 모교 音大 4학년에 재학중인 성기선동문이 맡고있다.

新刊

▲고향길

- 李應百著(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本報편집위원) 한국국어교육연구회장이자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이기도한 저

展示

▲姜燦均 金屬展

(63년 美大卒·모교教授)

금속공예가 강찬균의 작품은 예술성과 유용성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어떠한 재료로써도 그의 일관된 휴머니즘이 주입돼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우리의 삶을 신비스럽게 조감하면서도 「행복이 가득한집」에서 벌어질수 있는 일련의 삶의 상황이 배어나온다.

아들자랑

적동, 벽돌, 대리석, 마천석 780·550·130 mm

자가 「재비」 「旅滴」 「기다림」에 이어 내놓은 수필집. 이 책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듯 『넋물에 정신없이 떠밀려 내려가던 터에 하나의 마디를 지출 기회』로 여기면서 결국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엮어졌지만 목차에서 알수 있듯 「만남」 「말씨」 「수필과 사진」 등 저자의 연륜이 곳곳에 담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국어학자로서 한길을 걸은 학자의 궤적을 읽게끔 한다. <도서출판 文郷刊·3천8백원>

▲우리맛 좋은집

- 洪性裕著(52년 法大·作家)

소설 「비극은 없다」로 알려진 洪동문이 3년여에 걸쳐 전국을 돌며 쓴 식도락 가이드. 이 책은 단순한 음식소개를 넘어 현장취재로써 지역마다의 특성과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작가의 풍부한 표현으로 들려주고 있다. <동화사刊·4천원>

▲한국현대언론사

- 宋建鎬著(56년 法大卒·한겨레신문발행인)

대표적 언론인이자 현대사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저자의 눈을 통해 본 해방 이후의 한국언론 通史. 우리 언론의 자유훈에서 예측언론으로의 전락과정과 기업으로서의 비대화 과정을 심도있게 조명하면서 권말에는 「고행 12년, 이런일 저런일」을 실어 「연약한 지식인의 수난」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신문학이라는 것은 과학으로서의 학문이 라기보다 일종의 기능지식』이

라는 저자의 견해를 잘 표출하고 있다. <삼인사刊 3천6백원>

▲오디오의 세계

- 李裕健著(65년 工大卒·曉新기업대표)

오디오의 본질을 가능한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면서 이의 근원적 뿌리를 음미한 오디오



지침서. 현재 한국오디오애호가 협회장이기도 한 저자가 「황당무개한 수석어 남발로 오디오 본질 추구와는 다소 동떨어진 오디오전문지의 논조」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오디오라 칭하는 제반 분야, 즉 스피커에서 앰프, 카트리지, 디스크, 주요인물까지를 망라하고 있어 오디오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두남문화사刊·1만2천원>

▲醫學日本語漢字 읽기 新辭典

- 金光一著(72년 醫大卒·국립의료원 일반내과)

이 책은 저자가 그간 일상에서, 임상현장에서 무심코 접하는 「우리말화된 日本語」를 보다 원어에 충실하고 체계있게 다루어 보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종래 사전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漢字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그 옆에 일본어 독음과 우리말 뜻을 병기해 의화도뿐 아니라 日語를 배우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紫陽출판사刊·2만원>

▲대중화시대의 음악

- 李長巖著(84년 音大卒·음악평론가)

80년대 이후 음악계의 경향을 「대중화」로 규정, 각종 음악 현상을 사회상황 및 대중매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 평론집. 음악과 정치, 음악산업의 역사, 대중매체시대의 음악등 음악장르의 사회화·사회사적 의미를 심도있게 조명함으로써 음악비평을 사회비평의 차원으로 한단계 높이고 있다. <삼호출판사刊·5천원>

